

[조선]

제재와 함께 가속화될 그림자 선단의 퇴출 속도

김대성 조선 02-709-2665 / rlarla6019@ds-sec.co.kr

2026.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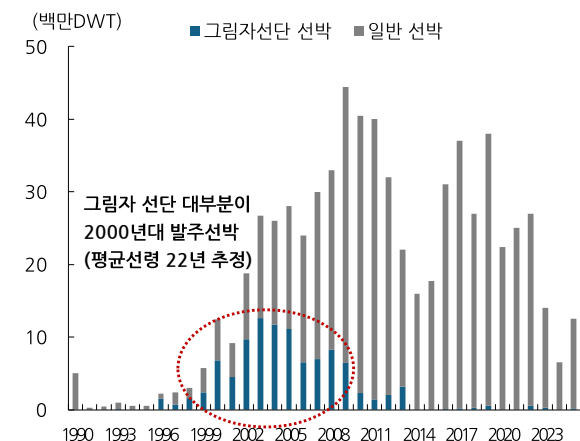
현재까지 나포된 선박만 6척. 제재와 함께 가속화될 그림자 선단의 퇴출 속도

지난 1월 15일 카리브해에서 VLCC인 베로니카(Veronica)호가 나포되면서 베네수엘라 봉쇄 작전 이후 압류된 선박은 총 6척으로 늘어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 제재에 이어 최근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송 유조선 수십 척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그림자 선단 압박을 본격화 하는 중이다. 현재 미국과 EU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선박은 약 1,000척으로 그림자 선단 전체 규모가 1,500~2,000척임을 감안 시 절반 이상이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림자 선단의 평균 선령은 약 23년으로 탱커선의 평균 폐선령(22년)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미국과 EU의 전방위적 제재는 이러한 노후 선박의 퇴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전체 글로벌 탱커선의 약 20%를 점유하는 그림자 선단의 폐선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운임 상승과 함께 선주들의 신규 선박 수요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탱커선 수요 확대는 곧 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탱커선 주력 조선사인 대한조선의 수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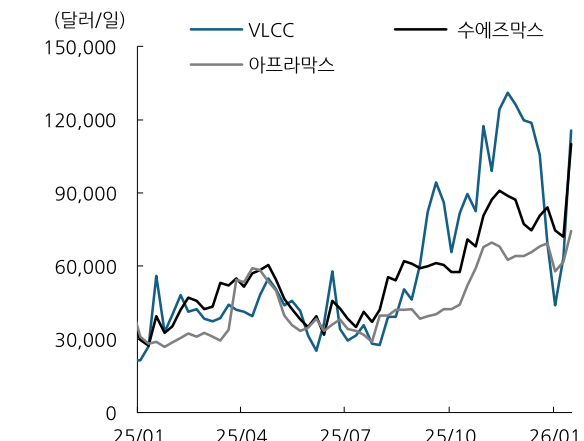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탱커선 스팟 운임은 전주 대비 급등했다. 특히 수에즈막스급 운임은 일일 11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운임 강세에 따라 탱커 선가 역시 2025년 11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시장 내 노후선 비중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그림자 선단 폐선 수요에 일반 노후선 교체 수요가 더해지며 호황기는 중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 중에선 대한조선의 수혜가 기대된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탱커선이 LNG선과 컨테이너선 대비 낮은 마진으로 수주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대한조선은 탱커선 주력 조선사로 탱커선의 마진이 상선 중 가장 높다. 이미 28년 도크를 절반 이상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가 협상에서도 우위에 있다. 수주 선가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

그림1 제재 선박 및 일반 선박 연간 인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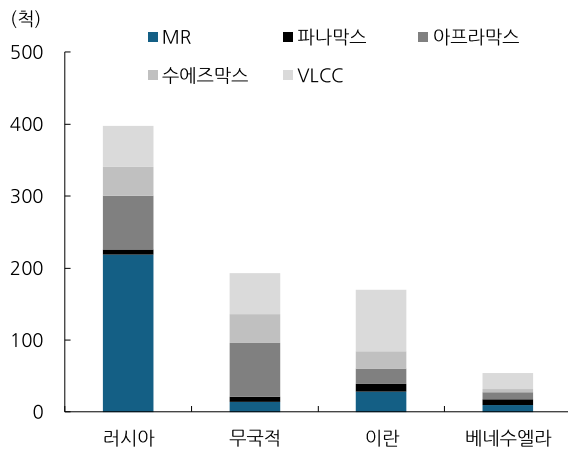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탱커선 선급별 스팟 운임 추이



자료: Clarks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국가별 그림자선단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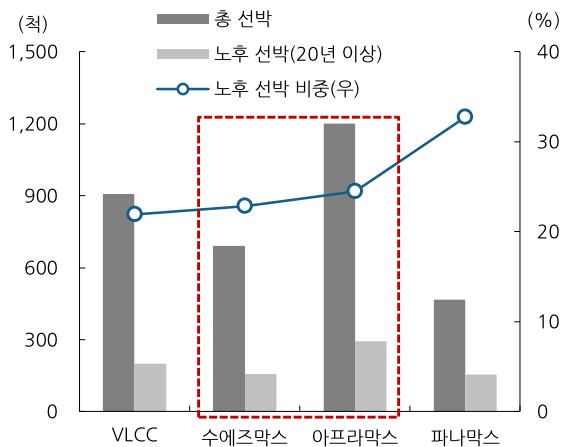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 25년 11월 기준

그림4 베네수엘라 봉쇄 작전 이후 나포 선박 현황

No.	나포날짜	선박명	선종
1	2025-12-10	Skipper	VLCC
2	2025-12-20	Centuries	VLCC
3	2026-01-07	Marinera	VLCC
4	2026-01-07	MSophia	VLCC
5	2026-01-09	Olina	아프라막스
6	2026-01-15	Veronica	아프라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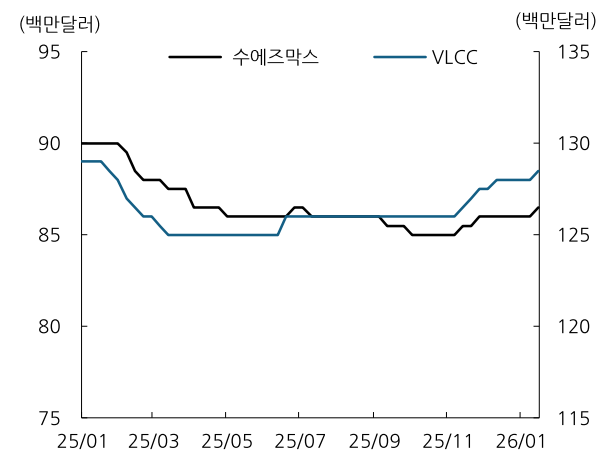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탱커선 선급별 노후선박 척 수 및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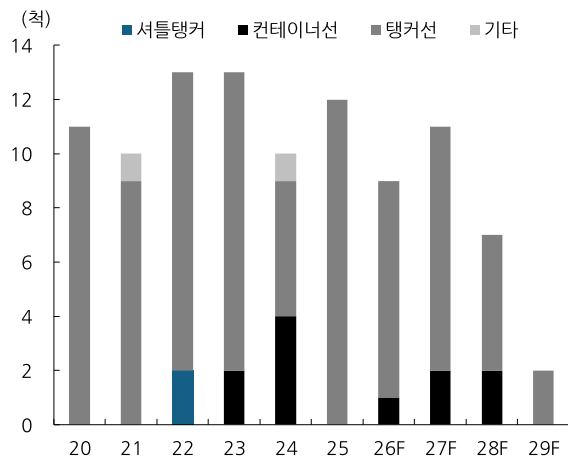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요 탱커선 선급별 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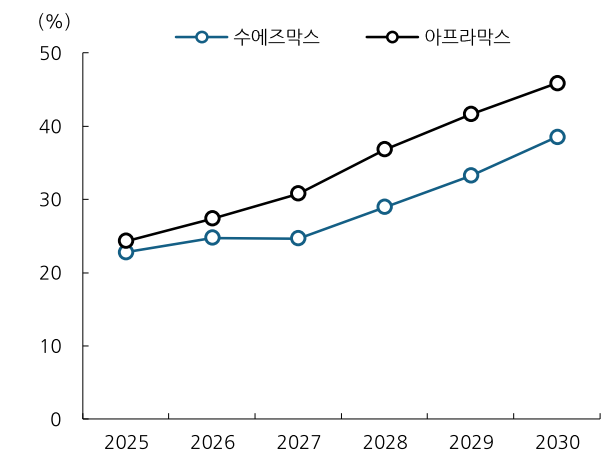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대한조선 연도별 인도 척 수 추이



자료: Clarks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대한조선 주력 선종별 향후 노후 선박 비중 전망



자료: Clarks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